

'오늘의탐정' 매화가 반전, 안방 추리욕구 '무한 자극'



'오늘의 탐정'이 눈을 땔 수 없는 드라마로 안방 극장을 매료시키고 있다

KBS2 수목드라마 '오늘의 탐정' (한지환 극본, 이재훈 연출)이 인パクト 강한 반전 전개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다일(최다니엘)이 땅을 파고 나왔을 때부터 이미 죽은 영혼이었다는 것과 선우혜(이지아)

가 죽음을 조종하는 생령이라는 반전이 펼쳐진 것

특히 '오늘의 탐정' 속 복선을 암시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장면과 대사는 시청자들에게 '추리하는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에 시청자들의 추리 욕구를 무한 자극하는 공금증 포인트를 살펴본다.

이지아는 왜 사람의 죽음을 조종할까?

1화부터 선우혜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유지원 선생 이찬미(비탈)의 귀에 "죽여버려"라고 속삭였다. 또한 아이들을 납치한 이찬미의 죄책감을 쉴 새 없이 자극했고, 이창 납치 사건을 벌인 이찬미

임팩트 강한 반전 전개로 뜨거운 화제

는 결국 귀를 자른 채 자살했다.

뿐만 아니라 선우혜가 과거 정여울(박은빈)의 동생 정이랑(제지안)과 이다일의 어머니(예수정)를 자살하도록 조종한 것이 밝혀져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선우혜는 다 일모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과정에서 다일모의 가슴 속 깊숙이 있던 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자극했고 심지어 '이들을 죽게 하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선우혜는 환각을 이용해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하고 공포에 휩싸인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선우혜는 정이랑의 청각장애를 약점으로 쥐고 괴롭힌 매니저(임철형)와 이찬미를 부당 해고한 유지원 원장(김혜연)에게 환영을 보여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선우혜가 왜 사람들의 죄책감이나 분노를 자극해서 죽음을 택하도록 조종하는지 궁금증이 높아졌다. 더욱이 선우혜가 12살 때 아버지와 동생의 죽었던 사건 현장에 여러 날 동안 방치되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죽음을 조종하는 악귀가 된 배경에 그의 과거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지아 걸 지키는 남자 간호사 전배수의 정체는?

선우혜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 전덕중(전배수)의 정체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전덕중은 잡담 선우혜 곁에서 12살의 선우혜(하정은)가 품었던 마음을 대변하는 '마신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 '마신 이야기'는 항아리에 갇힌 마신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자신을 구해 주지 않자 분노에 차 결국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야기였다.

이는 어린 선우혜가 아버지와 동생이 죽은 사건 현장에 방치되었을 때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전덕중이 선우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음을 암시해 그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높였다.

뿐만 아니라 선우혜가 이다일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하던 시점에 전덕중이 정여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소름을 유발했다. 이에 정여울에게 접근한 전덕중은 선우혜의 조종을 받는 건지, 그가 잡든 선우혜

의 곁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실망설레가 오고 가고 있다.

최다니엘의 시신은 어디에? 최다니엘의 죽음은 진짜일까?

이다일은 정여울만 알고 있던 본인의 죽음을 한소장(김원혜)에게도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신의 시신이 묻힌 곳으로 한소장을 데리고 갔다. 본인의 시신을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알려려 한 것. 하지만 깊이 판 구렁이 속에는 이다일의 군번출만 남아 있었고, 이다일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져 시청자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다.

이다일의 시신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 이에 시청자들은 이다일의 죽음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을 하고 있다. 지난 3회 등장한 국과수 부검실의 신원미상 시신이 이다일이라는 추측과 선우혜처럼 이다일 또한 생령일 것이라는 추측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의 탐정'은 한지환도 볼 수 없는 폭풍 같은 전개로 시청자들의 시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전개에 시청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열렬한 호응을 보내고 있다.

첫방 '폴뜰소' 한태웅X농벤저스, 유쾌한 가을살이 시작



'폴뜰소 가을편' 한태웅과 농벤저스 4인방의 가을 시골살이가 시작됐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폴 뜰어먹는 소리 가을편' (이

하 폴뜰소 가을편)에서는 중당농부 한태웅과 '농벤저스' 4인방이 가을 시골살이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폴뜰소 가을편'에서 박나래, 송하윤, 이진호, 찬성은 바쁜 한태웅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미산리에 첫 등장, 힐링과 재미를 선사했다. 봄부터 함께한 송하윤, 이진호와 가을편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박나래, 찬성까지 모두 모인 '농벤저스' 4인방은 한태웅을 만나 자마자 추수할 논을 확인하고 고추 따기에 나서는 등 바로 가을 시골살이에 뛰어들어 웃음을 자아냈다.

박나래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던 경험으로 농사에 능숙한 면모를

뽐냈다. 농사와 관련된 전문 용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가 하면, 한태웅의 고추 따기 실수까지 짚어내며 '농사 반장'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닭이 무서워 눈물까지 흘리며 조류 공포증이라는 뜻밖의 약점으로 반전 재미를 선사했다. 처음 농사에 도전하게 된 '농알못'(농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 찬성은 한참 동생인 한태웅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농사에 임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송하윤과 이진호는 계절이 바뀌면서 변화한 논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봄에 이양기로 심었던 모가 무럭무럭 자라 버가 된 것을 보고 지난 봄의 추억에 잠기기도. 네 사람은 첫 만남부터 오랜 시간 합을 맞춰온 듯 뛰어난 케미를 발산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했다.

한태웅은 과자와 과일을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등 손님맞이에

여념 없는 모습으로 미소를 자아냈다. 여전히 구수한 말투와 노래실력, 프로 농사꾼같은 면모가 반가움을 더했다. 특히 봄편에 비해 살이 많이 빠진 한태웅은 "밭에서 일하다 일어나면 살이 찌서 머리가 푹 풀었다"며 오로지 농사를 위해 10kg를 감량한 사실을 밝혀 농사꾼의 참모습을 자랑했다.

한태웅의 대농 프로젝트를 도울 새 식구의 정체도 공개됐다. 우리나라 정통소 중 하나인 최소가 바로 그 주인공.

전국에 3000여 마리 밖에 없는 최소를 분양받기 위해 직접 뛰어든 한태웅은 "최소 복원 사업을 통해 인성 최소를 만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밝혀 '농벤저스' 4인방을 감동시켰다. 또한 한태웅이 노래자랑에 나가 우승하기 위해 나라와 찬성의 집중 과외를 받는 에피소드가 즐거움을 전했다.

한편 '폴뜰소 가을편'은 평균 2.4%, 최고 4%(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

'진짜사나이300' 육군3사관학교 출격



'진짜사나이300'이 육군3사관학교와 돌아온다

21일 첫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진짜사나이300'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군을 뽑는 '300위리어 선발 여정을 함께한다.

지난 7월 말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첫 촬영을 진행한 이후 특전사 등을 주 무대로 병에 300위리어 전투원이 되기 위한 평가 과정과 최종 테스트에 도전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매주 더우마부터 강지환 안현수 홍석 김호영 오윤아 김재화 신지 이우비 리사까지 10명의 도전자가 '300위리어' 도전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로 향하는 가운데, 이들의 미션은 사관생도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군3사관학교에 도착한 이들은 신체검사와 문진을 거쳐 체력검정

을 하고,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중요한 기본 세 가지로 목소리, 시간 준수, 동기애를 숙지하게 된다. 이 세 가지에는 '진짜사나이300'의 기대 포인트가 모두 담겨 있다.

3사관학교 생도들은 입관 후 야전에 나가 실제 병력을 육성으로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했던 목소리가 필수다. 지도생도에게 훈련을 받는 도전자들이 점점 더 우려했던 목소리와 '다나까' 말투로 군인의 면모를 갖추어나가며 성장할 모습에 기대가 모아진다.

시간 준수는 군인의 생명이다.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도전자들은 조금씩 이를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적응해 나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뭇함을 느끼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기대 포인트는 동기애다. 10인의 도전자들은 생활관에서 남여가 따로 생활하고 훈련과정에서는 함께하게 된다. 남녀 각각의 생활관에서 꽃피운 그들만의 이야기와 훈련을 받으며 다져질 동기애가 진정한 감동을 선사할 전망이다.

도전자들은 모두 사관생도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에서는 탈진 군 문화 역시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21일 밤 9시 55분 첫 방송.

'미스터 션샤인', 한국인이 좋아하는 TV프로그램 1위

tvN 주말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처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미스터 션샤인'은 한국갤럽이 11일부터 13일까지 시골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TV프로그램을 묻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선호도

6.8%로 1위를 차지했다. 7월 7일 첫 방송된 이후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스터 션샤인'은 '태양의 후예'(2016년 3월 2위, 12.3%), '쓸쓸하고 찬란하神(神)대궐'(2017년 1월 1위, 12.8%)를 만든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의 세 번째 화제작이

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시절의 병들의 항일투쟁사를 그린 드라마로, 방영 초기 캐스팅 논란과 역사 왜곡 지적도 있었으나 화를 거둬하며 몰입감을 높였다. 낮에는 명문가 '애기씨'지만 밤에는 저격수로 의병 활동을 하는 '고애신'(김태리), 노비에서 미군이 된 '유진

초이'(이병헌), '김희성'(변요한), '쿠도 하나'(김민정), '구동배'(유연석) 등 제작사의 시대적 아픔을 지닌 주조연 인물들이 매력을 더했다.

'나 혼자 산다'는 4.7%를 기록, 2위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달 1위에 오른 KBS2 주말극 '같이 살래요'(4.1%)는 3위로 밀려났다. KBS1 일일극 '내일도 맑음'(2.4%)은 5위로 지난달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오늘의 순서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음력 8월 10일)



▶**경미** 두 가지 일을 하려니 심신이 너무 고달프다. 부부가 분담하는 것도 좋겠다. 애정은 한눈에 반했다고 결혼 상대자로 착각하면 실망하겠다.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듯 때를 기다리면 서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



▶**계미** 쇠는 빨리 뜨거워지면 그만큼 빨리 식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정이 들면 실망도 쉽게 난다. 사업도 처음부터 크게 벌이지 말고 작게 차근차근 시작하라.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 9, 10 월생 서, 북쪽에서 도움 줄 듯.



▶**을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대 관계를 원활히 하라. 겸손한 자세가 요구된다. 젊은 나이에 살림이 느는 것만 생각하지 몸을 생각하지 않아 건강을 해친다. 서, 오, 토 성씨 남, 서쪽에서 유혹이 올 듯.



▶**진미** 적은 투자로 소득이 많은 운이다. 자신의 실력을 한껏 발휘하고, 자만심을 버린다면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겠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미련한 짓이다. 서, 오, 토 성씨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양보와 이해심으로 감싸주라.



▶**정미** 세상 사람들 모두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아랫사람을 다루는 데는 단점보다 장점을 칭찬하고, 스스로 단점을 깨우치게끔 이끌어 줘야 한다. 그래야 능률을 더 올릴 수 있다.



▶**신미** 남들은 원앙 부부라고 부러워하겠지만, 만나기만 하면 싸증이 나고 다툼이 너무 잦은구나.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양보하는 것이 좋겠다. 숨겨둔 사람이 있다면 청산해야 한다. 돼지, 범피와 상의하라.



▶**유미** 사랑해도 조건 탓에 다투기 마련이다.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정을 주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방해자가 생긴다. 서, 토, 금 성씨 신경은 이제 그만 쓰라. 건강해야 사랑도 찾을 수 있다.



▶**미미**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에 해롭다.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대화로 풀라. 2, 7, 11 월생 친한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 작은 일로 우정에 금이 갈 수 있고, 이해타산을 하게 된다. 서, 토, 오 성씨 추진하는 일은 서두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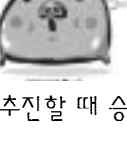
▶**유미** 동에서 밤 맞고 서에서 분골이한다는 식으로 밖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고 안에서 화풀이하는 사람을 받아주지 마세요고생이 심하다. 서, 서, 서 성씨 가정엔 신경 써야 할 때다. 자녀 탈선이 염려된다. 사랑만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신미** 남편이 하는 일인데 아내가 관여할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직접 뛰고 싶으나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자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자신 있게 북쪽 사람과 상의하면 풀린다. 서, 7, 10 월생 용기를 갖고 추진하면 길하다.



▶**계미** 직장에서는 손조로우나 가정일로 마음고생이 많다. 매사 결단력이 부족해 매듭지지 못한다. 주대 없는 사람처럼 질질 끌고 있으니 중간에서 난처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서, 오, 토 성씨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을미** 살아가는 데 여러 번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어려워도 슬기롭게 대처하면 승리할 수 있다. 4, 7, 9 월생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마음뿐이다. 자신감이 없어 괴롭구나. 과감히 추진할 때 승리할 수 있다.